◇동학사 대웅전

◇마곡사의 '냉잡채'

사찰·음식 영문판 출간

서울·경기·강원·충청지역서 77곳 선정

역사·건축양식·탱화서 조리법까지 소개

사진작가 이정애(57)씨가 국내 전통 사찰의 모습과 각 사찰을 대표하는 음식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영문으로 소개한 책 〈Korean Temples & Food〉(JungLee출판사 刊)를 출간했다. 이 책은 20여년간 뉴욕을 무대로 활동해온 이정애(계원예술대 겸임교수)씨가 3년여에 걸쳐 전국 1백여개 사찰의 풍광을 렌즈에 담아 만든 것이다.

〈Korean Temples …〉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4개 지역에서 엄선한 대표적 사찰 77곳의 역사와 연혁, 건축양식, 불상, 불화, 단청 등을 사진과 설명으로 소개했다. 또 각 사찰마다의 대표적 음식 하나씩을 골라 재료와 조리법도 실었다. 특히 책 말미에는 각 사찰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주소와 연락처를 일목요연하게 곁들여 외국인들이 원하는 사찰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상원사의 우엉김치, 신흥사의 숙주나물, 법주사의 무국, 옥천사의 김부각 튀김, 흥국사의 고추찜, 선암사의 버섯 튀김, 범어사의 야채죽, 무량사의 미역 생떡국 등 다양하고 큼직한 사찰음식의 컬러 예술사진이 보기만 해도 군침을 돌게 한다. 특히 이 책에 소개 된 것들은 요리 연구가적 시각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국, 김치, 나물 등 실제로 사찰에서 해 먹고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어서 일반 대중들이 가정에서 식단을 짜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욕망을 자극하는 음식문화가 강요되고 있는 이시기에 사찰음식이 던지는 메시지는 비단 채식뿐만이 아니다"며 "사찰음식은 절제와 검약, 담백 등의 음식문화를 형성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애씨는 "다른 문화를 만나는 가장 유쾌한 방법은 바로 음식이라는 생각에 우리 사찰의 미각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었다"며 "외국인들에게 한국 불교문화를 알리는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516-8985

문화 담당=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창작발레와 연극이 어우러진 손재현 무용단의 '에밀레종' 공연 장면.

현대 창작 발레·연극 한마당

불교무용극 '에밀레종' 공연

鐘에 녹아든 佛心·장인정신·恨 표현

딸바치 모정 갈등 장면에 진한 감동

월드컵 기념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창작 발레와 연극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한 편의 불교 무용극이 무대에 오른다. 불교포교 전문 무용단인 '손재현 무용단'이 28·29일 양일간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하는 창작 발레극 '에밀레종'이 바로 그것이다.

김흥우 교수(동국대 예술대학장)의 원작에 손재현교수(동국대 체육학과)가 안무를 맡은 '에밀레종'은 봉덕사 성덕대왕 신종(일명 에밀레종)의 주조 과정에 녹아 있는 불심이 주 내용을 이룬다. 이 작품은 현대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봉덕사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어 낸 신라인들의 불심과 장인 정신, 그 속에 서려 있는 한과 넋 등을 현대 창작 발레로 표현했다. 특히 정아의 인신공양으로 종을 완성하려는 주물공들의 역동적이고 빠른 몸놀림은 눈여겨 볼만하다. 여기에 종불사에 딸을 바친 정아 어머니의 불심과 모성애 사이의 갈등을 애절한 몸짓으로 형상화한 장면은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손재현 교수는 "이번 작품에 대사가 있는 연극을 삽입한 것은 신체언어인 무용만으로는 관객들이 기획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극의 도입부에서 펼쳐지는 도량석 장면에서는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11명의 스님들을 출연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02)2260-3420

"불교미술사연구 교학적 접근 필수"

장충식 교수, '불교 몰라도…'에 일침

"불교는 몰라도 불교 미술사는 가능하다?"

지난 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국보 112호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의 사리장엄에 대한 보고서에서 "감은사지 동탑은 문무대왕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조성됐다"고 주장해 불교계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불교 미술사가들은 "일반 스님들조차 부도를 만들지 않던 시대에 재가자의 사리를 불탑에 봉안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교 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어처구니없어 했다.

이 같은 '해프닝'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장충식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박물관장)는 31일 중앙승가대학교가 '근대 이후 인문학에 나타난 불교관'을 주제로 개최하는 학술 세미나에 미리 제출한 주제 발표문에서 "오늘날 많은 미술사가들은 미술품의 형식이나 양식적 문제에만 집착한 나머지 조형 예술품의 발생과 전개에 관한 근본 문제를 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불교는 몰라도 불교 미술사는 가능하다는, 만용에 가까운 자신감을 지니고 있다면 미술사의 장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국 미술사학은 학문적 체계를 구축하기 보다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 논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모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모순은 교학적 지식이 결여된 채 막연한 추정에 의한 자의적 해석을 전개함으로써 형식이나 명칭 문제 등에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는 이밖에 허흥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임기중 동국대 교수, 윤이흠 서울대 교수, 신오현 경북대 교수가 각각 역사학, 어문학, 종교학, 철학의 불교관에 대해 발표한다. (031)980-7716 권형진 기자

'문화재 기능의 맥' 창간

전문분야 지식·회원동정 실어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회장 신응수)가 최근 창간한 반년간 잡지 〈문화재 기능의 맥〉(사진)은 협회에 소속된 문화재 기능인들을 위한 일종의 정보지다.

110여 쪽 분량의 〈문화재 기능의 맥〉은 현장에서 일하는 문화재 기능인들이 꼭 알아야 할 전문 분야별 지식과 문화재 상식 등을 실어 일반인들에게도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길잡이가 되기에 충분하다.

매호마다 특집과 '우리 문화재 순례' '문화재 탐구' '탐방' '우리 문화재 기행' '관련 단체 소개' 등의 기획물과 협회 소식, 회원 동정 등으로 꾸며진다. (02)3672-8803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아침에 창을 열고 내다보니, 첫 햇살에 앞산의 나무들이 황금빛으로 물든 가운데 향긋한 꽃내음이 코를 스친다. 요즘은 이 산 저 산 할 것 없이 온통 아카시 천지다. 온 산이 아카시의 흰 꽃으로 뒤덮이는 것을 보니, 산야에 아카시가 이렇게 많은 것을 새삼 느낀다. 겨울에는 나무껍질이 쩍쩍 갈라지고 메말라서 애처롭기만 하던 나무가 이렇게 흰 꽃을 활짝 피우니 대견스럽기도 하다. 다른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나면 초봄에도 꿈쩍 않고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새싹도 맨 나중에 움터 안타깝게 하더니, 때가 되자 꽃이 피어 산을 하얗게 뒤덮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카시 나무는 쓸모가 없다고 말한다. 기둥으로 쓰자니 좀이 슬고, 책상으로 쓰자니 못이 들어가지 않는다. 배를 만들기에는 너무 무겁고, 화목으로 때기에는 가시가 많다. 그래서 아무도 그 나무를 심고 가꾸려 하지 않고, 베어다 쓰려는 사람도 거의 없다. 결국 뽑아 버리려고 하지만, 어느새 자라나 산과 들을 덮고 있는 것이다. 아무 곳에나 잘 자라는 왕성한 생장력과 번식력은 놀라울 정도다. 쓸모는 적을지 몰라도, 우리 산이 단기간 내에 푸르름을 간직하는데 이 나무가 큰 기여를 한 것은 틀림없다. 나아가 요즘은 아카시 없이는 벌꿀이 채취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밀원(蜜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아카시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부처님 오신 날에 때 맞춰 세상을 장엄해주기 때문이다.

초파일과 아카시

부처님 오시날 때맞춰
꽃 활짝피워 세상 장엄
소중한 날을 함께 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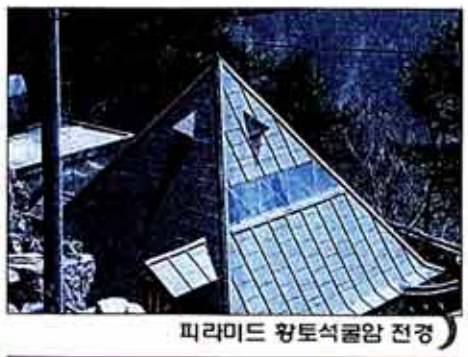
이 좋은 계절에 부처님이 오신 것도 고맙고, 다행히도 아카시 꽃이 활짝 펴서 그 소중한 날을 산천초목이 함께 축하해준다는 사실도 고맙다.

부처님 오신 날이 음력으로 4월 8일인 의미를 새겨본다. 우리 동양인은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숫자인 4와 8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벽암록에 나온다. 어느 제자가 조주성(趙州城)에 살아 '조주'라고 불리던 대선사에게 정체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조주는 어떠합니까(如何是趙州)." 120살이나 살아서 늙은 부처(古佛)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노련한 조주 스님은 슬쩍 이렇게 비껴간다. "조주성에는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있지."

"조주,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조주성은 사통팔달 뚫려있다"고 받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어디 성에만 문이 있을까. 인간에게도 동서남북의 문이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이 점을 가르쳐주려는 게 아닌가? 마음에 걸림이 없이 한번 시원하게 살아보라고.

마음의 문을 열면 인간은 한없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큰 스승의 탄신 일을 맞아 우리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배워야 할 것이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 막상 우리 자신도 함께 태어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초파일은 과거의 일이 아니며, 부처님만의 생일도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날이다. 아카시 꽃향기는 오늘도 우리 모두의 정신적인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다. ■문학평론가

1 2002년 맞이 6
만 국 역 리 학
보덕 지음
세계인이함께보는
9종운세풀이서
신국판
112쪽
값 6,300원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우) 339-834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T. 041)867-4000
F. 041)867-4001
3 돌섬 정화사 8

본심·본성이 살아 숨쉬는 피라미드황토석굴암
- 여타 찜질방이나 황토집과의 비교 할 수 없는 힘의 세계-

피라미드 황토석굴암 전경

피라미드안 거실 및 황토 돔의 구조
본심·본성이 살아 숨쉬는 황토 +
소나무 참나무 장작과 구들 황토방 + 피라미드 에너지
피라미드 구조물
피라미드 형태의 공간 구조물이 지구 방위의 남북 방향으로 정확히 배치되어지면 그 공간 구조물 내부의 특정지점 (바닥에서 꼭지점 3분의 1지점) 에 주로 미지의 에너지 공간이 형성되며 이 미지의 에너지에 의해서 피라미드 내부에는 여러가지 신비한 현상 (탈수 건조 현상 및 면도날 재생, 식물 생장 및 발아 촉진, 생체 치료 및 활성화 효과 등)이 발현
황토석굴암이란?
황토석굴암 생황토 40톤과 회오리방식의 구들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번 불을 지피면 10일을 가는 난방, 여타 찜질방이나 비교할 수 없는 힘의 세계에서 내몸의건강과 정신의 평화를 위해 피라미드 반원구 황토 석굴암이 내뿜는 강력한 에너지의 비밀에 귀 귀울여 보자.
엄청난 우주의 기운과 지기가 내 몸을 휘돌아 정화하고 재 충전 시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피라미드황토석굴암 구조
• 크 기 : 지름 (내경) 380cm
• 벽두께 : 35-40cm • 높 이 : 210-270cm
피 라 황 토 시공 문의 017-585-6045 019-558-8356